

# 프로야구 운명의 1주일...우승팀·5강 다 갈린다

삼성 vs KT 마지막까지 1위 다툼  
5강 마지막 두 자리 경쟁도 안갯속

꼭 옥새 남았다. 이번 주에는 길었던 월투에 마침표가 찍힌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1 신한은행 올 KBO리그 정규시즌이 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작역이 코앞이지만 아직 우승팀도, 가을야구에 나설 이들도 결정되지 않았다.

우승 레이스는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2파전으로 압축된 모양새다. 양조를 재건하려는 삼성의 뒷심은 막판 우승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었다.

삼성은 22일과 23일 KT와의 맞대결을 모두 잡아내면서 단독 선두를 꿰찼다. 토종 선발인 원태인과 백정현의

호투는 팬들이 들어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삼성이 순위표 최정상에 등극한 것은 6월2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제 남은 지킬 일만 남았다.

KT는 8월12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 6경기까지 앞서며 여유있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였지만 막판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삼성(75승9무57패)과 KT(74승8무57패)의 격차는 0.5경기. KT가 삼성보다 2경기 많은 5경기를 남겼다.

KT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잔여경기를 모두 이기면 삼성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떨어진 페이스와 상대할 NC 다이노스(3경기),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이상 1승)가 총력전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두 팀과 3강 체제를 구축했던 3위

LG 트윈스(69승12무57패)는 패권 다툼에서 한 발 떨어진 분위기다. 지난 주말 두산전 2무1패를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3무3패에 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4위 두산 베어스(67승8무64패), 5위 SSG 랜더스(64승14무62패), 공동 6위



NC 다이노스(65승8무65패)·키움 히어로즈(66승7무66패)는 두 장의 가을 야구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이다.

두산과 SSG가 다소 유리해보이지만 NC와 키움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산술적으로는 8위 롯데 자이언츠

(64승7무68패)에도 기회가 남아있다. 5전 전승 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9월 이후 성적에 전체 3위(23승4무18패)에 해당하는 점을 떠올리면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뉴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공을 다루고 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침묵했고 토트넘은 0-1로 패해 5승4무(승점 15)로 6위가 됐다.

## 토트넘 감독, 손흥민-케인 고립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웨스트햄 원정서 0-1 패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패배로 연승 행진이 끊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감독이 상대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고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웨스트햄과의 2021-2022시즌 EPL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졌다.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나 2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5승3패(승점 15)로 리그 6위다.

산투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갔다. 좋은 장면도 만들었다. 웨스트햄에 많은 위기를 허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지난 주중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비테세(네덜란드) 원정에 손흥민, 케인 등 주축 선수들을 제외하며 웨스트햄전을 대비했다. 그러나 체력적으로 상대에

게 큰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산투 감독은 “모든 선수가 열심히 했고, 체력적으로 현명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골 맛을 봤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골이자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에 도전했지만 침묵했다.

또 ‘단짝’ 케인과의 EPL 통산 최다 합작골도 다음으로 미뤘다. 손흥민과 케인은 EPL에서 35골을 합작했다. 역대 최다인 프랭크 램파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의 36골에 1골 뒤진다.

이날 손흥민과 케인은 웨스트햄의 압박에 고전하며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다.

산투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이 고립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풀백과 공격수들은 충분히 창의적이었다. (두 선수가 고립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반 39분이 돼서야 처음 교체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선 “전체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었다. 교체는 변화가 필요할 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친정 발목 잡은 장현식, 혼신의 34홀드...KIA타이거즈 최초 홀드왕 확정

2013년 신생팀 NC 1순위로 입단해 지난해 이적

KIA 타이거즈 ‘셋업맨’ 장현식이 최소 공동 홀드왕을 확보했다.

장현식은 2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7-4로 앞선 8회말 등판해 나성범을 좌익수 뜬공, 윤형준을 중견수 뜬공, 그리고 애런 알테어를 삼진으로 속아내면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시즌 34홀드째를 기록했다. 이로써 홀드 2위인 주권(KT)의 27개와는 7개 차이가 됐다. KT의 잔여경기기는 7경기.

주권이 잔여경기에서 모두 홀드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장현식과 같은 34홀드가 된다. 장현식은 이제 최소 공동 홀드왕을 확보하게 됐다.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최초의 홀드왕이 탄생하는 순간.

2013년 신생팀 NC의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로 프로에 입단한 장현식은 파이어볼러의 잠재력을

쉽사리 터뜨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적 이후 부침을 겪었지만 곧장 셋업맨으로 자리잡았고 홀드 행진을 이어갔다. 10월 들어서 팀이 상승세를 타면서 장현식의 등판 빈도는 많아졌다.

지난 8일 LG전부터 10일 한화와의 더블헤더 2경기까지, 4경기 연투를 하면서 KIA 벤치의 투수 운영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현식은 홀드왕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의욕적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이날 5강을 향해서 갈 길 바쁜 친정팀인 NC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위력적인 투구를 펼쳐며 홀드를 추가했다. 9경기 연속 홀드다. 팀의 승리를 이끌고 친정팀의 발목을 붙잡았다. 타이거즈 최초의 홀드왕



장현식의 탄생은 친정팀 앞에서 이뤄지게 됐다.

장현식이 내려간 뒤 9회, 마무리 정해영이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결국 3점 차를 지키며 홀드왕과 함께 팀 승리도 챙겼다.

경기 후 윌리엄스 감독은 “오늘

장현식이 홀드왕 타이틀 확정했는데 한 해동안 주어진 역할 충실히 너무 잘해 주었고 팀에 큰 도움이 되어서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기동취재본부

## 유영, 피겨 그랑프리 1차 대회 동메달...김예림 8위

쇼트프로그램 실수 딛고 입상 성공



유영(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1-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1-2022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7.09점, 예술점수(PCS) 69.15점 등 146.24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70.73점과 합쳐 총 216.97점을 획득한 유영은 출전 선수 12명 중에 3위에 자리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을 뛰다 착지 실수를 해 5위에 머물렀던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최종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려 입상에 성공했다. 유영이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9-2020시즌 그랑프리 2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대회 여자 싱글에서는 알렉산드라 트루소바(러시아)가 232.37점으로 금메달을, 다리아 우사제바(러시

아)가 217.31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영화 ‘레미제라블’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맞춰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시작한 유영은 최대 무기인 트리플 악셀을 무난히 뛰었지만 쿼터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 나와 수행점수(GOE) 0.91점을 잃었다.

이러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토루프 점프 쿼터랜딩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트리플 루프, 더블 악셀을 실수없이 땀 유영은 스텝 시퀀스를 레벨4로 연기한 뒤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시도한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완벽하게 소화, GOE를 2.02점이나 챙겼다.

안정적인 연기를 이어가던 유영은 연기 후반부에 다시 흔들렸다.

레이백스핀에서 레벨3을 받은 유영은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또다시 토루프 점프 쿼터랜딩 판정을 받았다. 트리플 플립 단독 점프에서도 예지 사용에 주의하라는 어텐션 판정이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유영은 남은 과제는 모두 완벽하게 수행했다.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을 레벨4로 처리한 유영은 코레오 시퀀스에 이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도 레벨4로 연기했다.

함께 출전한 김예림(18·수리고)은 199.34점으로 최종 8위에 올랐다.



## 배드민턴 안세영, 덴마크 오픈 결승 중 부상 기권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아쉽게 2021 덴마크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패권을 놓쳤다.

안세영은 24일 밤(한국시간) 덴마크 오픈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 패했다. 안세영은 세트스코어 1-1로 맞선 3세트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를 중도 포기했다.

세계랭킹 8위 안세영은 세계랭킹 5위 야마구치를 맞아 1세트를 21-18로 따냈다. 2세트가 아쉬웠다. 안세영과 야마구치는 막판까지 치열한 점진전을 이어갔다.

안세영은 20-19에서 야마구치의 직선 스매시를 잡지 못해 듀스를 허용했다. 23-24에서는 서틀룩을 코트 끝으로 보내려 했지만 라인을 벗어나면서 세트를 빼앗겼다.

2세트에서 경기를 끝내지 못한 안세영의 컨디션은 3세트 들어 크게 떨어졌다. 안세영은 테이핑을 한 오른 허벅지에 문제가 생긴 듯 여러차례 손을 무릎에 대고 숨을 골랐다. 그러나 끝내 나아지지 않자 5-16에서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기를 택했다.

## 한국, AFC 여자아시안컵 첫 우승 도전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에 참가할 12개국이 모두 확정됐다.

AFC는 25일(현지시간) 2022 여자 아시안컵 본선 12개국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자 아시안컵 예선은 25개국이 8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A-H조 1위 8개국(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이란, 태국)에 개최국 인도, 2018년 대회 1-3위 팀인 일본, 호주, 중국까지 총 12개국이 경쟁한다.